

원룸에서 투룸까지

From one room to two rooms

글. 김완수_ Kim, Wansoo · 시인

태초에 집 한 채가 있었다. 광활한 땅(바닥)과 거대한 하늘(지붕)로 이루어진 집이다. 그것은 지구라는 집이다.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작용하여 기둥이 필요 없는 원형 돔 형식이며 원룸이다. 그 원룸은 자연의 집이다. 우주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집이다. 최초에 어떤 인간이 그 원룸에 자기만한 공간(룸)을 만드니 그것이 또한 인간 최초의 자연을 모방한 원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건축은 원룸에서부터 시작인가? 아니다.

인간의 건축은 투룸에서부터 시작이다.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아닌 자연과 대립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다. 원룸은 자연의 집이고 투룸부터 인간의 집이며 인류 최초의 욕망을 가진 공간 분할이고 건축의 시작이다.

인간의 원룸은 웅크린 형태다. 자연을 그대로 닮았다. 방어의 형태다. 인간을 비롯한 자연계의 동식물 모두는 위협 앞에 웅크린다. 최적의 표면적으로 웅크린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웅크려야 한다. 웅크리고 나서 펼친다. 웅크리는 것이 중심이고 다음이 펼침이다. 밖에서 중심으로 오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갖는 어리석음 자체다. 중심, 그것이 원룸이다. 그러나 원룸은 방어적이고 본능적이어서 아직 그것이 건축이랄 것까지는 없다. 그냥 본능이다. 투룸(여유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부터 인간의 진정한 건축은 시작된다. 인간의 욕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자연에 대한 입장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된다.

인류가 혈거를 버리고 광야로 나섰을 때 애초에 집 한 채가 있었으니 그것이 집인 줄은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긴 매 한가지인데 단점은 지나치게 넓었더라는 것이다. 공간은 너무 넓어도 불편하고 너무 좁아도 불편하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지구의 집을 가장 근사하게 닮은 지붕을 만드니 삼각형 형태의 움막이다. 가장 단순하고 최저의 각을 가진 안정된 구도이다. 본능의 집이다.

그런 면에서 집은 지붕이다. 지붕이 천장이다. 따로 천장은 없었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처마가 땅을 지탱하고 있으니 땅(바닥)이 천장인 셈이다. 투룸의 욕망이 천장을 하늘로 밀

어 올렸다. 천장이 바닥을 떠나 솟아오르니 부자연스럽지만 기술이 필요한 기둥이나 벽체가 발달된 것이다. 지붕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천장이 올라간 것이다. 하여튼, 건축 기술의 시작은 또 여기서부터이다. 힘겨운 중력과와의 전투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되었다. 인간이 중력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때까지 한정된 전쟁이기도 하다.

최초에 인류가 혈거를 버리고 광야에 섰다. 광야는 허허롭고 막힘이 없었다. 어떤 녀석이 그곳에 킁킁거리며 움막을 한 채 지었다. 인류 최초로 사적 공간이 생겼고 장애물 하나가 생겼다. 직선거리가 막히고 곡선거리가 형성되고 공간이 인위적으로 비틀어져 창출되었다.

건축은 공간을 비틀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문화다. 이치는 간단하다. 중력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편리하게 공간을 쌓고 자르고 구부리고 잇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인간 욕망의 개입은 중요한 척도이다. 그 척도를 가지고 지지고 묶는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씩 생략하고 단순화하면 결국 움막 한 채만 남을 뿐이다.

지구상에 현생 인류가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 애석하게도 인류는 별로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변화는 수평적인 변형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수직적 발전은 아닌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이천 년이 넘는 관념(철학)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으며 과학적 측면에서도 불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다. 원자력도 태우는 것이며 전기도 태우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태우고 있다. 중력의 밧줄에 매달린 원숭이일 뿐이다.

열심히 밀고 닦고 세우고 부수고 다시 세우고 멋지고 세련되고 아름다워도 내 눈에는 움막 한 채만이 겨우 보인다. 언젠가는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올 거라 나는 믿는다.